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8. 1. 28 ~ 2018. 2. 10 제176호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中당국, 종교규제 앞두고 교회 폭파 철거”

지하교회 및 가정교회에 탄압 우려

강화된 종교규제 시행을 앞둔 중국 당국이 지방의 한 기독교 가정교회를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고 12일 대만 자유시보가 보도했다.

당국은 지난 9일 교회 측 동의를 받거나 사전 통지해주는 조치도 없이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푸산(浮山)현에 있는 개신교 가정교회 진딩당(金燈堂) 건물을 폭파했다.

진딩당은 지난 2004년 완공된 대형 교회로 중국 관영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니다. 공산당 세속 정권의 통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일반 개신교 교회들은 진딩당 같은 비관영 예배당을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교회 양릉리(楊榮麗) 목사는 현지 경찰들이 7일부터 교회를 에워싼 뒤 신도들의 접근과 진입을 막고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더니 9일 오후 교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교회 건물을 폭파했다고 전했다.

현지 당국은 교회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신도 및 주민들의 접근과 사진촬영을 막았으며 교회 철거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취재도 받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진딩당 교회의 폭파 철거는 강화된 종교사무조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뤄져 우려를 사고 있다. 중국 정부는 2월 1일부터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관영 지하교회나 가정교회에 대한 전면 탄압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GNPNEWS]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사도행전 7:59~60)

기도 | 주님, 중국의 교회가 더욱 거센 핍박 앞에 놓여있습니다. 중국의 교회가 지금의 고난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로잡혀 더욱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 중국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처럼



제공: WMM

- 차드의 한 마을에서

소년은

형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풀로 뒤덮인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 첫 번째 고랑이 제법 반듯하게 나서 쟁기를 잡은 손에 즐겁게 힘이 들어가는 중이다.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고랑을 팔지는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년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직 씨를 심지 않았지만 밭을 갈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니면 두 마리의 소를 이곳에 끌고 올 때부터,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그는 이미 마침내 얻게 될 귀한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가오는 주의 강림을 바라보는 교회도 이와 같다. 아직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실현될 선교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인내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인내는 곧 얼마아마한 영광과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GNPNEWS]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야고보서 5:7~8)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51)

기독교, 독선적인 것 맞습니다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에 기분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종교를 전혀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독선적 종교’라고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격의 이유라면, 맞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독선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의 방법이 단 하나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에 걸린 환자에게 “무슨 약이든지 열심히 복용하기만 하면 병이 낫습니다. 당신 입맛에 맞는 약, 좋아 보이는 약을 알아서 복용하기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한 의사라면 정확한 약을 처방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그 처방전을 ‘배타적이다, 편협한 처방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각 다른 처방을 내면서도 “어떤 처방전이든 일단 약만 복용하면 된다.”고 말하는데도 당신은 오히려 그들에 대

해 ‘관용적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올바른 정확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는 의사들, 그래서 ‘다른 처방전들도 다 알리 있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의사들은 당신의 영혼의 문제에 무책임한 것입니다. 사이 좋게 서로 인정하고 연합하여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이 타당해 보이면 당신이 바로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일러스트=김경선

길을 하나님은 열어 주시지 않았 습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아프리카
‘예수 영화’ 1500번째 언어로 번역 2면

기획
타지키스탄, 찬송가를 종교 혐오 이유로 목회자 3년형 3면

인터뷰 | 전미숙 목사
“남은 인생을 주님 나라만 구하며 살고 싶어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가능성이 0%일 때 필요한 것, ‘절대 믿음’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아프리카

‘예수 영화’ 1500번째 언어로 번역

에티오피아 외판 지역에서 문맹인들에게 복음 전파



▶ 다산낙에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모습(출처: jesusfilm.org)

최근 에티오피아의 가장 외판 지역인 다산낙에서 1500번째 언어로 번역된 예수 영화를 상영했다고 미국 종교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다산낙은 에티오피아, 케냐, 그리고 남수단의 소수 종족 집단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작년 11월 11일, 특별한 건물이 없는 곳이기엔 먼지로 가득한 별관에서 영화가 상영될 수밖에 없었다. 예수 영화가 시작되자 두 개의 마을에서 주민 300여 명이 모였고, 영화를 시청하는 도중 주민들

의 숫자가 2배로 늘었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다산낙 마을의 거의 90%에 가까운 주민들이 예수님과 교제를 맺기 원한다고 표현했다. 그들 가운데 79명이 즉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이 예수 영화의 번역을 위해 후원하고, 첫 영화 시연에 참석한 복음 후원기금의 설립자인 존 레인하트는 “우리가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3년간 후원을 지속한 끝에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꿈같이 느껴졌고, 나를 겸허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예수 영화의 다산낙 버전을 보기 위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성도들과 지도자들도 약 200명 가량 모였다. 그들 중 한 지도자는 “오늘 우리의 기도자들은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종족에게도 살아서 다가오고 있다.”고 기쁨을 전했다.

다산낙의 인구는 약 7만 명으로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인이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레인하트는 “예수 영화와 같이 복음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영화는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예수 영화는 1979년에 최초로 공개되었고 현재는 2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상영되고 있다.

실제로 이 영화는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도 가장 많은 상영을 한 영화라고 한다. ‘예수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jesusfilm.org)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7~1:20)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시리아에서 새해 어린이 30명 사망...“아이들 미래 어디에”

시리아 내전의 마지막 격전지인 동부 구타에서 새해가 시작된 지 2주만에 어린이 3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말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동부 구타는 반군의 마지막 거점으로 정부군의 공습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 어린이까지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시리아 땅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지길 기도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진리로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기쁜 소식인 십자가를 들려주시길 강청합니다.

외설 동영상 공유한 덴마크 젊은이 1004명 기소돼

1004명이 넘는 덴마크 젊은이들이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스마트폰에서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고 영국 BBC가 15일 보도했다. 이들은 15살의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이 오직 자기만족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은 비통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이버 공간까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는 거룩한 증인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동성애 인도 왕자, 동성애자들에게 왕궁 개방

동성애가 불법인 인도의 왕족으로는 유일하게 지난 2006년 커밍아웃한 만벤드라 싱 고힐(52) 왕자가 동성애자들을 위해 선조들이 1927년 완공해 물려준 왕궁 안에 전용 보금자리를 건설하고 있다고 최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동성애가 이제는 인도까지 뒤흔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인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GNPNEWS]

한국

‘2018년은 회개기도의 해’ 국내외에서 집회

3월 25일 인천내리교회에서 첫 집회

한국교회회개운동본부(섬김 본부장 최요한 목사)가 2018년을 ‘한국교회 회개기도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 및 한인교회가 밀집한 미주 대륙에서 회개집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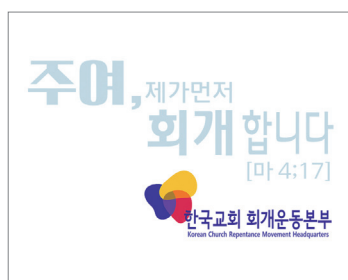
이 집회는 오는 3월 25~27일 인천 내리교회(김흥규 목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각 지역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2박 3일의 회개집회를 매주 연속으로 열 여갈 예정이다.

회개운동 본부장 최요한牧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도덕의 기

준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회도 세속화와 맘몬의 영향으로 끝없이 타락하고 말았다. 총체적 부패 앞에 회개운동이 절실하다.”고 이번 회개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모든 집회는 주일날 시작해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집회는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개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집중한다. 김용의 선교사(LOG미션), 최요한 목사(남서울비전교회) 등이 주강사로 나선다.

올 상반기 참여 교회는 4월 1~3일 광주 포도원교회, 5월 27~29일



신촌성결교회(박노훈 목사), 6월 24~26일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 등이다.

‘다시 복음으로! 한국교회 회개 집회’에는 한국교회회개운동본부와 복음기도동맹, LOG미션, 순회 선교단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GNPNEWS]

한국

미디어선교사학교 제4기 훈련생 모집

본지를 발행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증인들을 양성하는 미디어선교사학교 제4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부터 1년간 합숙으로 진행 될 이번 학교는 미디어 영역의 전반

적 이해와 실습, 마지막 시대에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훈련과정으로 진행된다.

복음학교를 수료한 자로 미디어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

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월 24일까지. 문의 ☎ 070-7417-0408~10, 010-6326-4641,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1월 29일 ~ 2월 10일

1월 29일~2월 3일

- 1.29~2.3(매일 0시~24시)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김**)010-5057-2149
- 1.29~30, 2.1~2(매일10시~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1.29(0시)~30(24시)
▶경남 김해 / 진영대성교회 (박**)010-3930-6296
- 1.30~2.2(매일15시~17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2.1(08시~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2.2(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2.2(10시)~2.3(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2.2(15시)~2.3(03시)
▶서울 강서 / 어울림교회 (박**)010-2664-6936
- 2.3(06시~12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 (강**)010-5408-6348

2월 5일~10일

- 2.5~10(매일0시~24시)
▶전남 광주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 ▶경기 의왕 / 대흥교회 (천**)010-2794-9906
- ▶경기 성남 / 금광교회 (민현미)031-742-0433
- 2.5~10(매일06~20시)
▶부산 해운대구 / 순전한교회 (최**)010-7580-1832
- 2.5~6, 8~9(매일10시~12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2.6~9(매일15시~17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2.8(08시~12시)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2.9(08시~20시)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2.9(10시)~2.10(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2.9(15시)~2.10(03시)
▶서울 강서 / 어울림교회 (박**)010-2664-6936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타지키스탄, 찬송가를 종교 혐오 이유로 목회자 3년형

심각한 인권유린과 종교탄압으로 교회 폐쇄 잇따라

인구의 98%가 무슬림인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의 교회가 2017년 한 해 동안 많은 압박과 고통을 겪었다고 종교자유기도소식(RLPB)이 최근 전했다.

수도 두산베에 있는 유치원 두 곳은 기독교인 직원을 고용했다는 것과 유치원 내에서 기독교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폐쇄조치됐다.

지난 3월에는 북부 도시인 코니 보돔의 한 교회가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받아 성도들이 심문과 협박을 받고 심지어 폭행을 당했다. 이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았다.

6월 두산베에서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침례교회에 경찰이 습격해 서적들을 압수하고 성도들을 심문했다. 성도들은 비디오 촬영을 당했으며 그들의 개인 정보도 공개됐다. 또한 교회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다른 무등록교회들도 습격을 당했으며 서적들이 압수되고 교회의 리더들은 협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았다.

4월에는 쿠드잔드시 등록교회인 선민교회의 바크롬 콜마토프(42)

목사가 종교적 혐오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하나님의 군대가 전진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와 같은 가사의 찬송가가 교회 내에서 발견됐다는 것과 조쉬 맥도웰이 쓴 '단지 목수는 아니셨던 분'과 같은 서적이 종교적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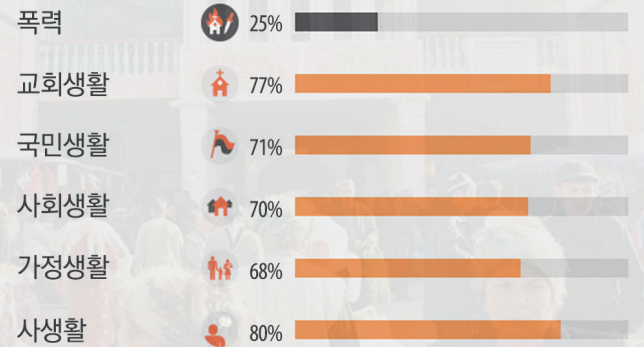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중국과 인접한 국가로 이전에 소련연방의 일부였으며 1992년 구소련체제로부터 독립했다. 5년에 걸친 내전의 여파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으며 국가 체제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인구 9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의 소수집단인 교회는 정부와 무슬림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법률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는 교회와 모스크에서 이뤄지는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가장 큰 압력을 받



▶ 타지키스탄의 박해 현황(출처: opendoorsusa.org)

타지키스탄 박해 상황



World Watch List 2018

는 이들은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과 무슬림 공동체, 주 정부로부터 받는 모든 방식의 박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박해는 지방에서 더욱 강하게 자행되고 있다. 박해의 종류도 언어폭력에서부터 신체 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할 경우는 집에 감금되고 납치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한다.

대다수 교회들은 소규모로 유지되고 있으며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도 많다. 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주 정부의 허가를 얻는 것 또한 극히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타지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가정교회에서 비밀리에 모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단속이나 구금 또는 심문을 받으며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국가의 평화와 결속의 선구자! 국가의 리더!'로 불리는 이몰라리 라몬 대통령의 25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타지키스탄 내의 종교상황은 심각하게 나빠졌다. 2016년부터 타지키스탄 내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극히 나빠졌으며 국가의 수뇌부들을 포함한 반대정당의 의원들이 투옥되기도 했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美 동성 커플에 대한 웨딩 케이크 거부, 6년째 법정 투쟁

기독교인 케이크 디자이너 필립스 사건, 대법원 참관기

2012년 미국의 케이크숍 마스터 피스를 운영하는 잭 필립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 커플에 대한 웨딩 케이크를 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동성 커플은 필립스가 콜로라도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로 6년째 이어진 이 소송은 '차별'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지난해 말 대법정에서 열린 심리에 참가해 브레이크 포인트에 기고한 기독교 컬럼니스트 존 스톤스트리트와 로베르트 리베라의 법정 참관기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필자는 법정 밖에서 진행된 잭 필립스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최근 대법원에서 명품 제과점 마스터피스 케이크숍 대 콜로라도 시민위원회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이 법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필립스는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자의 권익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성결혼 내지 동성애 권익이란 이름 하에 이뤄지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받고 싶지 않다고 요청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이나 시민위원회 측은 필립스의 요청을 그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립스는 주 정부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해 자신의 신념을 계속하여 지킬 경우, 사업의 40%에 해당하는 이익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했다.

필립스의 행동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리 논쟁은 필립스가 주 법에 따른 발언의 자유를 침해했는지의 여부로 다루지고 있다. 평론가들은 주문 제작되는 케이크가 발언 형식의 일종으로 표현된 방식이냐며 폄하했지만, 대법원은 발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자유수호연맹 소속으로 필립스 측 변호를 맡은 크리스텐 와그너는 미국헌법의 수정 제1조(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는 필립스와 같은 제빵사가 어떠한 종교적 신념이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문 제작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필립스는 케이크 디



▶ 출처: breakpoint.org 캡처

자인의 밑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며 직접 색을 칠하기도 하는 아티스트라고 말했다.

변호인 와그너는 자신이나 자신을 선임한 필립스중 누구라도 일반적인 제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팔아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또한 주문 제작되는 케이크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케이크가 진열대를 벗어난 후 새겨지는 글씨나 상징물들은 어느 정도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인종에 관한 비교 또한 예상대로 언급됐지만, 필립스 측은

유리한 결론으로 정리됐다. 미국의 법무차관인 노엘 프란시스코는 필립스의 행위가 다른 인종으로 이뤄진 커플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와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브레이어 판사는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프란시스코 법무차관은 또 필립스가 발언 자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시민의 평등권 보호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브레이어 판사가 인권위원회측 변호인 야거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협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요청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또 그동안 중립을 지켜오던 케네디 판사는 필립스와 위원회 양측 모두에게 관용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필립스에게 유리한 발언이다.

현재 필립스가 우세한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케네디 판사가 필립스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유사한 사건들의 수위조절용으로써 이 사건을 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필립스 개인과 또한 자유, 유리한 판결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조선선교열전 (14) - 전라남도 편

자녀의 죽음을 딛고 일어난 순천 선교부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순천 선교부의 설립

순천을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사는 1894년 호남 일대를 순회한 레이놀즈(이눌서) 목사 일행이다. 그 후 1897년에 테이트(최의덕) 선교사가 그 지방에 선교 여행차 들러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장터 전도를 했는데, 그때 돌렸던 전도지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어느 주말 집 벽에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광주의 오웬(오기원) 목사는 순천까지 내왕하며 몇몇 교회를 설립했다. 그가 치명적으로 아프게 된 것도 이곳에서였다. 그의 사후에 1909년 프레스톤(변요한) 목사와 유진 벨(배유지) 목사가 목포에서 광주로 옮겨 전라도 동남부 지역의 사역을 감독했다. 두 사람은 이 지역을 함께 둘러보면서 순천 근교에 여섯 내지 일곱 개의 예배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중에는 도시 안에 50명이 모이는 큰 예배처소도 있었다. 순천은 광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지만, 이 지역

에는 새 신자들이 많았고 도서지방을 위한 도약점이 될 수 있었다. 프레스톤과 벨 목사는 순천에 선교부를 세울 것을 추천했고, 그해 가을 프레스톤 목사가 다시 순천을 찾아가서 한 달 동안 체류하며 전도했다.

1910년부터는 일 년에 봄, 가을로 두 차례씩 문답을 실시하고 니스벳(유서백) 목사가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1911년 선교부는 순천에 선교기지를 구입했다. 그 다음 해인 1912년에는 광주에 있는 코잇(고라복) 목사와 스윈하트(서로독) 장로가 순천을 내왕하며 집터를 닦고 선교사 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미국교회의 전적인 후원과 선교사 지원

그보다 전인 1911년, 프레스톤은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났다. 그는 새로운 순천 선교부의 스태프와 다른 센터에서 섬길 33명의 선교사를 모집하는 사명을 받고 떠났다. 당시 미국 교회들은 해외선교를 위한 열정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1907년 평신도 선교운동이 후원하는 새로운 선교강령의 채택에 따라 모든 교회는 7개 선교현장에 속한 총 2500만 명의 복음화를 위해 분명한 선교의 책임을 수락했다. 각 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이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았다. 선교부의 목표

는 1년에 1인당 4달러였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지원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였다. 프레스톤은 프래트 목사와 함께 이 평신도 선교 운동의 후원을 받아 선교사와 재정 후원자를 찾기 위해 교회를 순회했다. 고국 교회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해에 33명의 선교사가 선발되고, 그들의 한국 지원이 약속됐다. 가장 놀라운 일은 더럼 제일장로교회에서 일어났다.

프레스톤 목사가 강단에서 한국의 사정에 대해 설교한 그 자리에는 조지와츠라는 사업가가 있었다. 프래트 목사는 설교가 끝난 그 주말에 와츠 씨를 방문했다. 그리고 선교사 한 사람의 후원이 아닌, 순천 선교부 전체의 후원을 요청했다. 며칠 후 조지와츠는 그 제안을 수락하고, 순천에 세워질 새로운 선교부를 보강할 13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만3000달러씩 후원하기로 했다.

프레스톤이 지원금을 가지고 순천으로 돌아오자 순천 선교부 건축은 급물살을 탔다. 중국, 일본, 한국의 일꾼들이 근처 산기슭의 화강암을 다듬어 무거운 돌을 50km 정도나 지고 산길을 넘어 아래로 운반했다. 포구에는 미국에서 보낸 시멘트와 각종 자재가 도착했다. 곧 전체 선교부가 지어지고, 선교사들이 채워지는 보기 드문 역사가 일어났다. 1913년 4월에 드디어 코잇과 프레스톤 목사가



▶ 조지와츠 기념관. 등록문화재 제127호. 프레스톤이 설립한 보통성경학원으로 현재 1층은 병원, 2층은 재정 후원자였던 조지와츠의 기념관으로 사용(출처: 문화재청)

죽도 순천으로 이사했다. 두 가정의 여성들은 말을, 남자들은 자전거를, 아이들은 가마를 탔다. 가마꾼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 아이들은 잠시 가마 밖에 나와 풀을 따고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했다. 그렇게 인구가 늘고 교회와 학교가 생겨나면서 순천 선교부는 그 모습을 현실 가운데 활짝 드러냈다.

이질로 아이들을 잃고

그러나 순천 지역 선교사들은 불과 같은 연단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순천으로 이사 온 후 일주일도 되기 전, 4월 26일과 27일에 코잇 목사의 어린 딸 로버타(2세)와 아들 우즈(4세)가 차례로 이질에 걸려 사망했다. 코잇 부인도 이질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순천과 광주 선교사들의 중보기도와 치료로 살 수 있었다. 이 시기를

지난 코잇 부인의 간증은 멀고 낯선 땅에서 가족을 잃은 선교부에게 인내와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 이후 의료사역을 위해 이곳에 도착한 티몬스(김로라) 박사 부부와 간호사 그리어 자매는 알렉산더 병원을 설립했다. 순천 선교의 리더격인 크레인(구레인) 목사의 여러 가족은 남학교 사역을, 여선교사 두피(두애란) 자매는 여학교 사역을 위해 부임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복음선교와 성경사역에는 여선교사 비거(백미다) 자매가 부임했다. 이들 여러 선교사들은 순천의 일반·농촌 선교와 함께 매산학교 설립 등의 학원 선교, 알렉산더 병원을 통한 의료 선교를 서로 분담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쳤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한국선교이야기>(조지 톰슨 브라운 지음, 도서출판 동연, 2010)



선교 통신

차별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멕시코에 사는 알론소 목사는 2002년에 작은 기독교 소모임에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알론소의 신앙은 무럭무럭 성장했다. 성도들은 알론소에게 성경을 깊이 읽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묵상할 것을 권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미신을 섬기는 지역의 종교적 관행에 참여하고 있었다. 성경을 읽기 전까지 그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그는 곧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던 알론소는 자신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과,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산 후안 오졸로테펙(San Juan Ozolotepec)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갔다. 목사가 된 그는 10년간의 목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으며,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져 농사가 잘 되고 곡간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지켜봤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고난이 함께 있다

동시에 그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대가로 차별과 핍박을 시달리는 것 또한 목도해야 했다. 성도들은 지역의 토속적인 전통의 레나 지역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음식을 살 수도 없었으며,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러다 2013년에는 군중들에 의해 집밖으로 끌려 나와 구타를 당했다. 400명이 넘는 남녀 군중들이 그를 죽기 직전까지 마구 때렸다.



▶ 알론소 목사(출처: opendoorsusa.org캡처)

군중들은 폭도로 돌변해, 성도들이 직접 건축했던 교회 건물을 부수고 여러 집기들을 가져갔으며, 그의 땅과 소떼도 훔쳐갔다. 그리고 그는 3일간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 당시 알론소는 스테판 집사를 떠올리며, 그가 모욕당하고 고소당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

았을까를 생각했다. 그리고 주님을 목상했다. 그는 큰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핍박이 가해져 자 복음은 말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는 감옥에서 기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찬양했다. 주님의 임재는 그곳에서 훨씬 현실적이며 강했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3일 후 종교사무국 대표가 알론소의 석방을 협상하려고 감옥으로 왔다. 그에게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자발적으로 이 지역을 떠날 것에 서명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곳 저곳의 상처와 멍으로 움직일 수 없던 그는 지장을 찍었고 그날 이후로 그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지된 채로 산 후안에서 약 4시간 15분 정도 떨어진 교외의 한 마을에서 지내고 있다. 지금 알론소 목사는 산 후안 지역의 남아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돌보고 있다. [GNPNEWS]

<출처: 오픈도어>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남은 인생을 주님 나라만 구하며 살고 싶어요”



골방의 기도 파수꾼 전미숙 목사(안산은총교회)

안산성시화운동본부는 2010년부터 2년 간 안산지역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24·365본부와 연합해 릴레이기도운동을 벌였다. 당시 각 교회가 한 주 동안 144시간을 릴레이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 (이하 느헤미야기도)에 참여했다. 전미숙 목사도 안산성시화를 위해 이 기도에 동참했다가 기도운동이 끝난 지금까지도 7년째 느헤미야기도를 이어오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홀로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전 목사를 만났다.

- 어떻게 느헤미야기도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안산성시화에서 기도운동이 진행될 당시 저는 안산 지역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느헤미야기도에 참여하게 됐죠. 안산 지역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 동안 기도의 분깃을 담당했는데 저는 화요 팀장으로 섬겼어요. 화요일에 진행되는 기도인도와 기도파수를 책임지는 직임이었죠. 이 기도를 하면서 처음 느헤미야기도정보 책을 봤어요. ‘이런 기도도 있구나.’ 저도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고 기도를 해왔는데 이렇게 열방에 대한 정보를 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 중보기도 사명이 있으셨군요?

“남편이 목사였기 때문에 사모로 있을 때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때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선교사 얼굴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한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 또 다른 분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새벽기도도 한 시간을 일찍 나갔어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기도했죠. 정작 제 기도는 하지도 못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저를 오직 중보기도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중보기도 사명을 받다

-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참 많은 과정이 있었네요. 제 인생 전부에 걸쳐 된 일이지요. 아무래도 제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네요. 짝꿍이 어느 날 ‘너 교회 안가면 지옥 가. 내일 교회 올래?’라고 하는 말에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교회에 갔다 오기만 하면 때렸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맞으면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5학년 때는 방언도 받았죠. 하루는 학교 갈 때 버스비하라고 준 돈을 모아 40원짜리 성경책을 샀어요. 일년에 30독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버지에게 들켜서 성경책이 불태워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돈을 모아 또 성경책을 사서 친구 집에 맡겨놓고 학교에서 내내 읽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후 제가 성인이 되니 아버지도 저를 막지 못하셨죠. 감사하게도 나중엔 아버지도 구원받게 되셨어요.”

- 드라마 같은 얘기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교회에서 사역자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그때가 80년도니까 모두들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우리도 어렵게 짤 한 되를 사서 쌀통에 부어놓으면 남편은 싹털어서 성도들에게 줬죠. 하나님께는 최고지만 제게는 최악이었어요. 그러다 둘째 아들을 조산하게 되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됐어요.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고 2주 후에 장롱을 팔아

리어커를 구해 계란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으니 박스에 아이를 넣고 리어커에 싣고 다녔죠. 엄마들이 저를 긍휼하게 봐주었어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계란을 사주곤 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장사하다보니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니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때 교회를 지어야 했는데 노후대책으로 집을 지었어요. 나오는 세를 받아서 선교헌금을 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그게 화근이었어요.”

-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몇 년은 넓은 집에서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보호법이 바뀌고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집을 빼달라고 하면서 돈을 해주지 못해 빚만 지고 말았어요. 얼마 후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젊은 앤데 뼈가 불지를 앓고 각종 수술을 2년 동안 8번 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죠. 주님이 저의 존재를 다루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수술실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주님은 신학교로 저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나 봐요.”

-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들이 회복된 후 남편은 교회 청년이 사역하던 선교지를 도우러 아들과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비자문제로 잠깐 한국에 들어온 사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님은 계속 교회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어 3년을 방치했어요. 그러다 교회를 정리하고 병원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해도, 성경을 봐도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데 처음엔 순종할 수 없었어요. 남편하고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며 겪었던 고생이 떠올랐고, 조금씩 자리잡아가는 병원사역을 내려놓기가 아까웠죠. 그런데 주님이 내면의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서 만나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오직 기도만 하면서 매일 먹을 거 걱정, 집세 걱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연속된 고난에 절망하다

-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도 어떡해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허락해 주신 곳이 지금 은총교회예요. 그곳에서 본격적인 느헤미야기도가 시작됐어요. 초창기엔 안산성시화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느헤미야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

회도 매월 첫 주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주가 아니면 다른 교회 기도시간에 참여했어요. 당시 저는 대부분의 밤과 새벽시간 기도에 참여한 것 같아요. 남편 있는 사람들은 밤에 기도를 못한다고들 했죠. 저는 남편도 없으니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그때는 느헤미야기도를 하러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한동안은 둘이서 밤새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2년만 하고 막을 내렸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명이니까 하지만 사실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연속으로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 그리고 연속기도가 중단됐나요?

“아니요. 제가 그 기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기도를 시작했을 때 안산지역의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3년 정도가 지나자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대어섯 명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는 했죠. 그러나 밤과 새벽 시간에는 저 혼자 기도를 해야 했어요. 낮에는 기도자들이 오니까 식사준비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밤에는 저 혼자 기도를 해야 하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하다보니 물이 차서 관절염 수술을 하기도 했죠. 무릎 수술을 한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에도 느헤미야기도하는 주간이 돌아오

니까 시간 조절이 가능했어요. 물론 여럿이 기도하면 더 자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열방기도센터파트너쉽 모임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더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잠을 자도록 만들었으니 난 잠을 잔다. 그래도 난 내 분량을 다 한다. 기도를 안 하는 것 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주님은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겠니? 사람이 많을 때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너 혼자여도 할 수 있겠니?’ 2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응답을 드리고 난 이후, 지금은 감사하게도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몇 명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와 예배, 전도 등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루 세 시간 자며 기도하다

- 전도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안산역에 가서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전도했어요.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오신 선교사님과 연합해서 이주민들에게 전도도 하고 주변을 돌면서 기도도 했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한 선교단체 중동지부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을 가진 이후에 하고,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복음기도신문과 전도지를 들고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를 나가기도 했어요. 지금은 아들네 손주를 돌보고 있어서 안산역 전도는



▶ 동역자와 연합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

는 바람에 외출을 끊고 나와서 기도하고 병원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제 의무여서 순종했던 것이죠.”

-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놀랍네요. 지금도 안주무시고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뇌경색이 온 이후로는 세 시간은 자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시간 분량의 기도를 어느 정도 일찍 끝내고,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의 분깃을 모두 채우면서 세 시간 정도는 잘 수 있게 되더군요. 혼자서 기도하

고 대신 교회 앞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요, 1층에 있는 가게 사장님과 연합해서 해요. 사장님은 차를 끌여주고 저는 복음기도신문을 들고 전도하죠. 신문 한 장이지만 어떤 영혼이든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해줘요.”

- 정말 기도하고 전도만 하면서 사시는군요.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사실 기도하면서 외로움과 싸우게 되요. 그래도 지금은 동역자들이 있으니 든든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언약갱신 (1)

가능성이 0%일 때 필요한 것, '절대 믿음'

6.25 동란으로 해운대 백사장에 수많은 피난민이 모였다. '살려 달라'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혔다. 50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성공한 이 작전은 기적 그 자체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백사장에서 절박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았다. 이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믿음은 놀랍게도 우리의 최선으로는 불가능한 자리에서만 드러난다.

인간에게 가장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일은 죄로 인해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 불가능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5000분의 1의 확률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좋겠지만 구약의 역사 내내 이 일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언

약을 맺으셨다. 그것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닌,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필요로 했다. 인간 존재로는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다. 그 언약이 분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바로 출애굽이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밖에 없었다.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때에 100%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광야에서 끝없는 반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선민 이스라엘 역시 죄로 인해 아담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사건들을 통해 드러났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다시 시작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또한 불가능 그 자체였



일러스트=임이량

다. 무기를 잡아본 적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절대 믿음'이다. 나의 가능성이 0%일 때 필요한 게 '절대 믿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

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절대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다. 여리고성을 포함한 모든 전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절대 믿음'뿐이었다. 사사기의 비참한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나라를 유지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구한다. 그렇게 끈질긴 반역성

으로 병든 자아의 왕국을 대변하는 사울이 등장한다.

구약의 역사는 이처럼 기적과 고난 등, 무엇으로도 벗겨지지 않는 저주 받은 생명의 비참함을 낱알이 기록하고 있다. 표범의 반점을 지울 수 없듯이, 구스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인간의 저주 받은 생명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롬 3:10).

이미 하나님께 폐위 되었지만 겔모습은 왕국과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울. 그리고 자아의 왕국에 갇혀 하나님께 '실패'라는 도장을 몇 번이나 찍힌 이스라엘. 이렇듯 척박하기 그지없는 토양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또 다시 언약하신다(2016. 8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기도미디어 "오직 믿음" 시리즈

2017순회복음집회 오디오 CD **오직 믿음**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는 믿음! 종교개혁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 되는 오직 믿음. 두려운 경고이자 눈물겨운 감격스런 초대가 여기 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오디오 CD(2장 한세트) 6,000원
약 20분씩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 다시복음앞에 강의 수록 USB 발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RETURN to the '오직 믿음으로' GOSPEL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5대 강령 중 "오직 믿음" 주제로 진행된 2017 다시복음앞에 집회 강의영상과 헤브론원형학교의 성경입체낭송 "로마에 온 편지" 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의 수록 USB(1개) 25,000원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순종하며 작은 씨앗을 심듯 기도해요"

물론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외부에서 오는 자매 한 명이 전부인데요. '둘이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자매는 2박 3일씩 와서 기도해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도 오고요. 생각해보면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감찰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이 기대가 되요. 기도만 하는데도 주님이 죽이시지도, 굶기시지도 않으시고 이 자리에 서있게 하시니 감사뿐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겠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작은 씨앗을 심듯 제 남은 삶엔 기도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제목들 말씀해주세요.

"지금 돌보고 있는 손주를 곧 캐나다에 데려다줄 계획이에요. Y.K.

아들네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열방기도센터를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처음부터 날마다 24시간씩 기도는 하지 못해도 7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산 지역의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 기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처음에 서원한 대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들이 있는 캐나다에도 열방기도센터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제 남은 인생에 이젠 주님 나라만 구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붙잡아주셔서 계속 기도의 능선을 구축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 할 손주들과 함께**



“내가 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거예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훈련 과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국내 아웃리치를 떠났다. 첫 번째 일정은 구호단체 방문이었다. 그곳에서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 사는 알조라는 아이의 영상을 보았다. 처음엔 별다른 감흥 없이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곳에서 저런 음식을 먹고 생활하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조가 사는 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은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알조를 보여주시며 내가 얼마나 거만한지 보여주셨다. 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다. 게다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보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정말 부끄러웠다.

그곳의 아이들은 복음을 듣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처럼 나도 커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일에 쓰임 받고 싶

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 대물림되게 하고 싶다.

다음으로 한 선교단체를 방문했다. 그 단체는 전 세계의 박해받는 나라를 위해 성경책을 연간 약 330만 권을 옮긴다고 했다. 그것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세계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편하게 복음을 나누도록 동생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해야겠다고 결단했다.

또 성경책을 옮기면서 25년간 경비원들에게 단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위대하시구나.'라고 느꼈다.

불평불만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사탄의 노예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생각하니 내 자신이 밋고 부끄러웠다. 우리를 만드신 건 하나님



일러스트=박영희

이시고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 속에 새기며 잊지 말자고 다짐했다.

나는 아웃리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느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 훈련을 받기 전에는 교회만 출석하면서 사탄에게 눈이 멀어 하나님을

외면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 사실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하고 있었다.

또한 훈련을 받으며 말씀 묵상을 처음 해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깨달은 말씀을 나누기도 싫고 짜증도 났었는데, 지금은 나의 나눔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젠 나누는 게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 엄마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로 쓸 것'이라는 응답을 받으셨다. 그 당시에 나는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라고 생각했다. 난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건지 하나님을 의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내가 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가겠다. [GNPNEWS]

나에스더(16)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이제 장마당이나 길가에서 어린이나 노인들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저의 인생살이는 고달프고 허무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매일 세뇌교육만 받으며 진정한 사랑과 남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이 사회에서 목숨을 건지려면 저에게 있는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휘둘러 빼앗은 것을 당에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담배, 오락, 놀음 등에 빠져 아내를 고생시켰고 자식들에게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매일 같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

와 이웃들도 우리 집을 '큰 소리 한 번 없이 웃으며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강요하지만 다들 처음에 끊은 시늉만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무서운 당의 방침으로도 안되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으로 들어갈수록 저도 모르게 술과 담배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술과 담배가 멀어졌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크게 변했습니다. 장마당이나 길가에서 빌어먹는 아이들이나 연약한 여인들과 노인들을 보면 무작정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이어 나가니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복잡하던 인생살이가 단순, 명백해졌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중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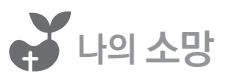


▶ 출처: 모퉁이들선교회

성경책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만난 듯 정신 없이 말씀을 마음 속에 새겨 넣었고, 조선에 와서도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매일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저의 아내와 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가는 길이 옳다며, 지금은 주일날은 물론 평일에도 시간을 내어 기도와 방송듣기, 찬송가 속으로 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가족예배는 어길 수 없는 생활 준칙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나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100여 리 떨어진 곳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녀오다가 차 사고를 당했지만 주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고 앞으로 못해 낼 일이 없습니다. [GNPNEWS]

<출처: 모퉁이들선교회>



영혼을 위한 부르심

마틴 로이드 존스는 왕실 주치의였다. 그러나 성공이 보장된 미래보다 영혼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해 목사의 길을 걸었다. 그는 목회 초기부터 사회 활동으로 사람을 모으는 대신, 복음 설교를 통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노동자계층부터 의사계층까지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되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복음주의가 '교단 통합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때에도 '성경적 교회론'에 비추어 문제와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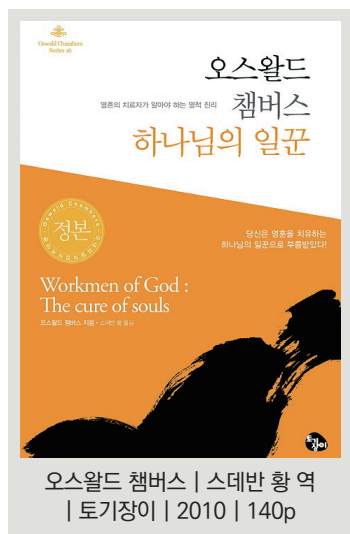
1968년 건강이 나빠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은퇴한 후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책을 쓰는 데 여생을 보냈다. 그는 생을 마치며 '나를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지 마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오스왈드 챔버스 <하나님의 일꾼>

다른 영혼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다운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일은 영혼을 치유하는 일, 구원을 얻

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무지하다. 나 또한 복음을 만나기 전 그랬다.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했다. 불신자들도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 무지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삶의 끝이 어디인지 생각조차 못한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 해도 온전한 믿음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든 아니든 이들에게 영혼의 문제를 알려주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할 수 있는가? 저자는 거듭나지 않은 도덕적인 영혼을 만나든, 타락한 영혼, 이중인격적인 영혼, 어리석은 영혼 등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원칙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영혼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다.

일꾼다와지는 방법도 '말씀과 기도'

챔버스는 또 하나님의 일꾼이 다른 영혼들을 대할 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사실 그대로 전해주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

님이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말씀과 기도'는 다른 영혼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일꾼답게 준비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을 잘 알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말씀에 익숙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 사건들 가운데 철저히 거하라. 성경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성경의 사실들 속에 계속 거하며 영적으로 강건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오히려 당신이 대하는 그 영혼의 질병에 전염될 것이다."

더불어 기도만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말한다. "문제의 영혼을 예수님이 직접 다루시도록 기도로 주께 맡기고 끝까지 매달리라."

챔버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인내'다. 영혼을 섬기다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헌신과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섬기는 일이다. 먼저 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온 열방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주님! 나를 말씀과 기도에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주님과 같이 품게 하소서!

[GNPNEWS]

강영숙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커브길에서 갑자기 앞 차의 페자재가 차 앞으로 쏟아지고..."

어느 날 공동체 선교사님들과 아이들까지 10명이 함께 차로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출발한지 10여분 지났을까? 우리 바로 앞 차가 건축폐자재를 싣고 가다가 커브 길에서 속도를 내며 달리는 바람에 그 폐자재가 우리 차 앞에 쏟아졌습니다. 운전자가 그것을 알아채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더라면 차 앞 우리가 깨져 사람들이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

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 했다고 했습니다.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참 미안해하셨습니다. 다치진 않으셨냐고, 놀라진 않으셨냐고,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며, 오히려 많이 놀라셨겠다고 답하며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더 선교사님이 우린 선교사라고 소개하며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며 짧게 복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원래 계획했던 일정들이 틀어지고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지만, 웬지 모를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 상황이 하나도 짜증스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을 도울 마음이 생긴 것은 나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상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오히려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담당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참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



일러스트=이수진

거 되었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이전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8,39) "나"라는 꼬리표만 붙으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며 은혜를 거저 받은 자는 거저 주는 것이라 알려 주셨습니다.

'거저 받은 이 생명. 주님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 이루소서. 나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주님 얻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잊었었는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고 그분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삶이구나!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며 그분을 전하는 삶. 내 안에 더욱 새겨졌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도 나는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GNPNEWS]

온세화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1. 3 ~ 1. 17 (가나다 순)

개인

김선희 김수미 김유남 김정대 박성규 박승은 안병운 안수경 유자인 이경희 이 순 이은주 이준진 이진희 임종태 장근혜 조상국 조성실 진영희 차인순 최정숙 홍혜경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망우제일교회 목자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빛의열매학교 샘물교회 웹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선일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춘천혜시바교회 트리니티소프트 헤브론원형학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대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규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